

# 빅스텝 따라가나... 美 '자이언트 스텝'에 고민 깊어진 한은

한미 기준금리 역전 초읽기  
한은, 내달 '빅스텝' 가능성  
이창용 "시장반응 보고 결정"

한국은행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미국이 최악의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한 번에 기준금리를 0.75%포인트(p) 인상하는 '자이언트 스텝'에 나서면서다. 우리나라도 오는 7월 예정된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대폭 올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현재 미국의 금리 상단과 한국의 기준금리는 연 1.75%로 같다. 이에 따라 오는 7월 미국과 우리나라 모두 '빅스텝(한 번에 0.5%포인트 금리 인상)'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19일 금융시장에 따르면 16일 미국 연방제도(Fed·연준)는 연방 기금 금리 목표 범위를 1.5~1.75%까지 인상했다. 이는 지난 1994년 11월 이후 28년만이며 지난 5월 초 기준금리를 한 번에 0.5%p 올리는 '빅스텝'에 나선 지 약 한 달여 만이다.

미 연준이 강력한 긴축정책에 나선 데는 물가 상승세가 좀처럼 잡히지 않은 영향이 컸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 /뉴시스

지난 5월 미국의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 동월보다 8.6%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1981년 12월 이후 40여 년 만에 가장 큰 폭이다.

실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는 성명을 통해 "팬데믹 관련 수급 불균형과 높은 에너지 가격 등으로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높다"라고 밝혔다. 이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막대한 인적·경제적 어려움을 야기하고 있다"라며 "침공과 이에 관련된 사건이 인플레이션에 추가 상방 압력을 초래하고, 세계 경제 활동에 부담을 주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오는 7월 FOMC에서도 한 번에 기준금리를 0.5%p 올리는 '빅스텝'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7월 FOMC에서 0.5%p 또는 0.75%p 추가 인상을 고려하고 있다"라고 언급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한은의 고민도 깊어진다.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다음 금통위는 오는 7월 13일이다.

일각에서는 미국의 긴축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만큼 한은에서도 '빅스텝'에 나설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미국의 금리 상단과 우리나라의 기준금리(연 1.75%)가 같아진 만큼 한미 간 금리 역전 현상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실제 지난달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에서 한 금통위원은 "당분간 5%대의 높은 물가상승률이 지속되고 내년에도 물가안정목표를 크게 상회하는 물가경로가 전망되는 데다 미국과 주요국들의 가파른 금리인상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통화정책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다만 이창용 한은 총재는 아직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총재는 지난 16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빅스텝'을 밟을 가능성에 대

해 "다음 금통위 회의까지 3주에서 4주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많은 변화가 있을 수 있다. 그때까지 시장 반응을 보고 결정할 것"이라며 "임시 금통위는 고려할 바 없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한은의 연말 기준금리 전망치를 높게 내다보고 있다.

이승훈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미 연준의 0.75%p 인상을 계기로 한은의 통화정책 전망을 수정한다"며 "지금까지 우리는 추정된 중립금리를 기준으로 한은 기준금리의 적정성을 가늠해 왔다"고 했다. 그는 "테일러준칙에 의거한 균형 기준금리는 높아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며 3% 내외까지 상승 중이다"라며 "정책당국의 물가안정 의지가 강하고 통화정책의 명백한 우선순위의 점을 반영해 연말 기준금리 전망을 2.75%로 상향 조정한다"고 말했다. 현재 기준금리보다 1.0%p의 금리 인상을 예상한 것이다. /백지연 기자 wldus0248@metroseoul.co.kr

## 전세계 인플레이 쇼크인데 중국은 나홀로 물가안정

### ● 차이나 뉴스 & 리포트

지난달 소비자물가 전월 수준 유지  
팬데믹 기간 통화완화 강도 약해

중국을 제외한 전 세계가 인플레이션 쇼크에 휘청이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식품 및 에너지 가격이 치솟은 것은 전 세계 공통이고, 중국발 공급망 약화는 인플레이션을 부추겼는데 정작 중국은 물가 격정에서 자유로운 모양새다.

19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따르면 중국의 5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 대비 2.1% 상승해 4월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됐다.

반면 같은 기간 미국의 CPI는 8.6%나 급등하면서 41년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유로존 역시 역대 가장 높은 8.1%로 집계됐다. 영국의 경우 이미 지난 4월 9%까지 치솟았다.

변동성이 큰 식품과 에너지 등을 제외한 중국의 근원 CPI는 0.9% 상승에 그쳤다. 올 들어 다섯달 동안 소비자물가지수는 1.5%로 정부의 연간 목표치인 3%를 크게 밑돈다.

전문가들은 팬데믹 기간 동안 중국의 통화완화 강도가 상대적으로 약했던 것을 이유로 꼽았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는 코로나 19 팬데믹 이후 양적 완화에 나서면서 현재 8조9000억 달러에 달하는 자산을 보유 중이다. 2년 만에 2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그간 경기부양 필요성이 크지 않았던 중국은 과도한 통화완화를 자제해 왔다.

이와 함께 중국의 CPI를 구성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비중도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세계 에너지 가격이나 통화 정책의 영향이 큰 교통과 주거비용의 비중이 크지만 중국은 의류와 식품 등에 가중치를 더 둔다.

중국 당국은 지난해 조정한 CPI 산출바스켓의 가중치를 공개하지 않았지만 전문가들 추정에 따르면 중국의 식품 가중치는 18.4%로 미국 7.8%를 크게 웃돈다. 의류 관련 가중치 역시 중국이 6.2%로 미국 2.8%보다 높다.

반면 임대료 가중치는 중국이 16.2%로 미국 32% 대비 절반 수준에 그치며, 운송·교통 역시 중국이 10.1%로 미국 15.1%보다 낮다.

경제 구조도 미국은 소비재 수입에 의존도가 크지만 중국은 '세계의 공장'으로 불리는 만큼 글로벌 상품 가격의 인상을 감당할 여지가 더 많다. 특히 중국은 팬데믹 이후 증가하는 생산 비용을 상당 부분 해외 소비자에게 전가했다.

다만 중국도 일반소비자들이 체감하는 물가는 공식 발표 수치보다는 높다.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면서 많은 이들이 전기자동차로 바꾸거나 대중교통을 고려하기 시작했고, 주재료로 쓰이는 계란과 식용유 등의 가격도 상승폭이 확대됐다.

중국국제금융공사(CICC)는 "국내 돼지고기 가격의 상승과 경기 회복이 소비자 물가를 끌어올릴 수 있지만 전체적인 소비자물가 수준은 여전히 안정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



## 한화생명 평생동행 종신보험 2204(무)

상담문의 080.365.6363

한화생명

을 검색하세요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험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또한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기존 계약 해지 후 신 계약 체결 시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는 등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선택 특약 가입여부에 따라 보장내용 및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품내용은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